

EG, 중국구매 줄어 가격 뒷걸음질

중국 Polyester 생산기업들 구매 절제 ... SARS가 수요 회복 걸림돌

EG(Ethylene Glycol) 가격은 2003년 1/4분기 공급타이트 및 원료코스트 상승에 힘입어 폭등했으나 중국의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원료가격 인하를 위해 구매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하향국면을 맞고 있다.

아시아의 EG 계약가격은 2003년 1월 톤당 52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폭등했고 5월 거래가격은 710-780달러 범위를 형성했다. EG Spot 가격은 3월 하순 톤당 750달러 수준에서 5월 초 460-490달러로 폭락했으나 6월 13일에는 625-640달러로 회복됐다.

그러나 수출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기업 간 거래가 유일한 현물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역상들은 판매 가격에서 50-100달러 손실을 보는 것보다 울산 등 아시아 지역에 제품을 저장하는 편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EG 수요는 월평균 28만톤이나 2003년 4월 수요는 그 절반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Polyester 원료인 Glycol 및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의 1/4분기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기업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구정연휴 이후 구매를 재개하지만 2003년 수요는 역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많은 문제들이 아시아 구매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으로 공급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바이러스가 중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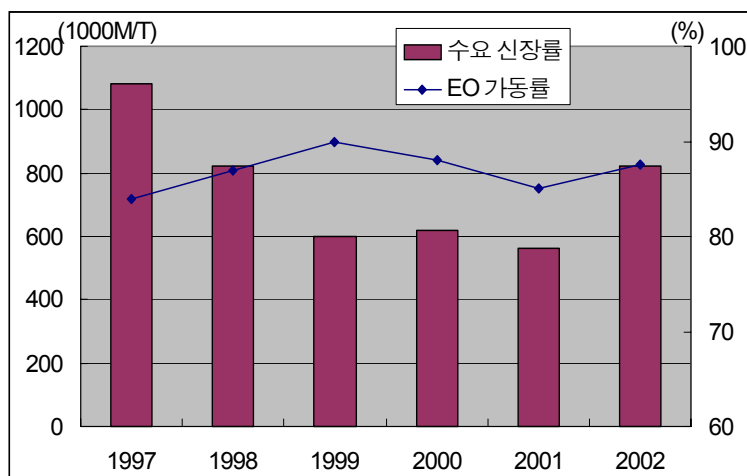
전문가 대부분은 전쟁이 끝나 원유 및 에너지코스트가 안정되고 있어 EG 수요가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SARS 영향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아시아 및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영국 PCI Xylenes & Polyester는 중국수요가 월 10만톤씩 감소해도 2003년 하반기 Glycol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I는 중국의 폴리머 생산량이 2002년보다 100만톤 늘어나 Glycol 수요도 35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Dow의 말레이 합작기업 Optimal은 5월 초 최근 Oxygen 라인 폭발로 EO(Ethylene Oxide) 및 EG 가동을 중단했으나 재가동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MEG 수요신장률 변화(1997-2002)

(단위: 1000M/T)



자료) CMAI

Dow는 루이지애나주 Plaquemine의 EO 플랜트 또한 가동차질을 빚고 있어 루이지애나주 St. Charles 플랜트의 EO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Dow, Shell, Equistar, PD 같은 생산기업들이 2/4분기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

EG의 수급균형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초과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정상을 회복하면 2003-04년 Glycol 가격이 상승하고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06/23>